



추석연휴 앞두고 항공편 감소

도의회 예결특위 “대책 서둘러야”

도 “임시편·대형기 투입 항공사에 협조 요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기집 항공 노선 좌석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전담 TF까지 구성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히려 항공편이 감소하면서 제주도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현) 제1차 회의에서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이 추석 연휴 항공편 감소에 따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임시편과 대형기 투입을 (항공사에)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는 응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행정부지사는 제주 항공 좌석난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항공좌석 공급 안정화 TF회의를 한 차례 진행했다”면서 “좌석난



김봉현 위원장

양경호 의원

은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다섯 가지 주제를 정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공항을 제주의 제2의 국제 관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봉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공항에 들어오는 전세기 비행기를 제주 직항처럼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인천공항을 제주의

제2의 국제 관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도 제주-인천 간 항공 연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제주-인천 노선 증편과 관련해 “제주는 무사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제주 직항이 없으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다시 김포공항으로 이동해 제주행 비행기를 타야 한다”며 “이 때문에 제주 직항 노선이 있는 중국 등을 통해 입국하는 상황”이라며 인천공항 환승전용 내항기 제도를 제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행정부지사는 “직항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더 활성화되면 제안한 대로 제주에서 한 번만 출입국 절차를 거치는 부분도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용두암에 외국인 관광객 발길 16일 제주시 용담동 용두암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정 제주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G20 정상회의 유치 활동 ‘본격’

어제 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식…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 제주’ 강조

제주특별자치도가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제주도는 16일 제주웰컴센터에서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개최 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8월 25일 유치 전담반 구성과 9월 7일 공식 홍보 개시에 이은 후속 단계다.

추진위원회는 위성곤 지사와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정·재계 대표 인사들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공공기관, 경제, 문화, 관광, 체육, 사회단체 등 각 분야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주도는 ‘새로 만들어야 하는

개최지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를 유치 논리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제주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중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회의·숙박시설이 모여 있고, 20개의 정상급 숙박시설과 132개 회의실을 갖춰 약 3만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출입 경로가 제한적이어서 접근 통제와 경호가 수월하고, 해상 방어체계를 바탕으로 정상급 안전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위성곤 지사는

“제주는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해온 섬이자 에너지 대전환으로 미래를 먼저 만들어가는 섬이라는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며 “세계 정상들이 모여 협력의 길을 찾는 G20 정상회의에 제주만큼 잘 어울리는 곳은 없다”고 역설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정상회의를 맞이할 준비를 다짐하는 릴레이 선언을 비롯 서울 G20 정상회의를 상징하는 청사초롱과 제주의 정남이 만나는 세리머니도 진행됐다.

제주도는 온라인과 현장 캠페인으로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정부선정 절차에 대응하며 신청서와 제안서를 준비한다.

이태윤기자

제주도 미불용지 부당 이득금 처리 형평성 우려
오은초, 계좌 가압류 사례 반복… “추가적 소송 가능성”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다 제주도 소유 계좌까지 가압류 당하는 사태(본보 9월 2일자 2면 보도)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오은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서흥동)은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미불용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이후 제주도 계좌가 가압류된 사례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내 미불용지는 약 3만4000필지(500만여㎡)로, 모두 매입하려면 공시지가 기준 약 1조9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



오은초 의원

8월 말 기준 소송 패소 토지는 1364필지로, 전체 보상액은 119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32필지에 대한 373억원의 보상이 완료됐지만, 932필지·825억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제주도가 최근 미불용지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부당 이득금 지급을 지연하자 이에 토지주 측이 소송대리인 A법무법인을 통해 제주도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도는 뒤늦게 예비비를 활용해 지급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한 바 있다. 또 다른 소송에서도 같은 방식의 가압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소송에서 승소하고 가압류까지 하면 빨리 지급받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저라도 소송을 할 것 같다”며 “기존 보상 절차를 기다리는 도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추가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보상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지적했다. 소송 패소 이후 부당 이득금이 나 임차료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 하는 만큼 단순히 보상 시기를 늦추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유다.

이와 관련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과거 도로 개설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오래된 행정문서가 보존되지 않아 소송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다”면서도 “패소한 토지를 전수조사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위성곤 지사, 제주개발공사 사장에 김도영 임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13대 사장에 김도영 전 GS건설 상무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김도영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사진)하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다시 도약하는 공기업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GS건설 상무에 이르기까지 27년간 영업·수출·건설·신규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사장의 도덕성과 전문성, 직무 수행능력 등을 검증한 뒤 ‘적격’ 의견



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1년 내에 성과를 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라고 느끼면 그만 두겠다”고 제주삼다수 시장점유율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꽃자왈

Hand In Hand

제주 거주 이주민과 제주도민이

어울려 꽃자왈의

특별한 생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장 소

교래자연휴양림, 꽃자왈도립공원

대 상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제주도민 (회차별 20명)

접수기간

2026.9.17.(목) ~ 9.30.(수)

회차별 운영일정

1회차	2026.10.02.(금)	교래자연휴양림
2회차	2026.10.10.(토)	교래자연휴양림
3회차	2026.10.15.(목)	꽃자왈도립공원
4회차	2026.10.18.(일)	교래자연휴양림
5회차	2026.10.21.(수)	꽃자왈도립공원
6회차	2026.10.25.(일)	교래자연휴양림
7회차	2026.10.31.(토)	교래자연휴양림
8회차	2026.11.05.(토)	꽃자왈도립공원
9회차	2026.11.15.(토)	꽃자왈도립공원
10회차	2026.11.16.(일)	꽃자왈도립공원

프로그램 세부안내 및 신청하기

프로그램 진행 일정

09:30	참가자 접수
09:30 - 09:40	프로그램 소개 (실내교육)
09:40 - 11:10	꽃자왈 탐구활동 (현장교육)
11:10 - 11:50	나만의 꽃자왈 만들기
11:50 - 12:00	마무리
12:00	프로그램 종료

문의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 사무국
064-783-0647

* 팀 단위 신청 가능

* 셔틀버스는 제주시 중앙경기장 시계방향에서 850원에 출발

* 신청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
The Jeju's Trust of Jeju

이 프로그램은

JDC도민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해안동

가족묘지 매매

80년대 제주시에서 조성한

사설공원묘지 2부락

지 번

제주시 해안동 355-61

지 목

묘 지

면 적

665㎡(200평)

연 락 처

010-5697-5224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lm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그랜드보청기

한가위 고객감사 대축제 물가안정 이벤트

1 50%특별할인

2 15만원 상당 UV전자 습기제거제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정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서비스매점

그랜드보청기